

직장상황 임산부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전 호 경·황 선 진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The Effects of Maternity Apparel Style and Job Type on the likability and the occupational Competence of Pregnant Working Women

Ho-Kyung Chun · Sun-Jin Hw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kyunkwan University

(1998. 3. 2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ternity apparel style and job type on the likability and the occupational competence of pregnant working women. This study was 3*2 factorial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maternity apparel style(feminine style, neutral style, and masculine style) and job type(assistant manager of bank and salesperson).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likability and the occupational competence of the stimuli.

One hundred eighty college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which half of the subject viewed the stimuli as a salesperson and the other half as an assistant manager of bank.

The results showed that maternity apparel style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likability($F(2, 174)=6.97, p<.001$) and occupational competence($F(2, 174)=16.25, p<.001$) significantly. Also Job type influenced the occupational competence($F(1, 174)=3.94, p<.05$) significantly.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F(2, 174)=2.53, p<.10$) between maternity apparel style and job type.

In future researches, diverse job distinction other than the classification of being professional or non-being professional can be arranged to study the influence of job type. Also it is recommended to explo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ppearance cues except clothing and job type.

Keywords: pregnant woman, working woman, clothing style, job type, impression formation; 임산부, 직장여성, 의복 스타일, 직업유형, 인상형성

*본 연구를 위해 일부복을 협찬해 주신 (주)쁘레나탈 일부복에 감사드립니다.

I. 서 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직업여성의 수는 196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3/4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8,948,000명으로, 이는 15세이상 여성 인구 중 50%에 해당된다. 1996년에 비해 증가된 경제 활동 인구수를 성별로 살펴볼 때 증가인원의 2/3를 여성 이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매우 현저한 추세이다¹⁾.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증가를 보이며 분야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순 노무직, 사무직, 농림 어업직, 전문기술·행정관리직순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의 영역이 가정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직업복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직업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상표의 성장이나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들을 위한 임신복 전문점의 탄생이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장여성들의 의복행동과 적절한 옷차림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여성에 관한 연구에 비해 임신한 직장여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임신한 직장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²⁾에서 임신한 직장여성은 일반적인 직장여성과는 다른 의복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임신한 직장여성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신 과정은 임산부들이 주체로서 경험하는 의복행동의 변화와 피지각자인 객체로서 타인들의 인상형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변화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의복선택 및 구매시 변화뿐 아니라 대인지각의 차원에서 임신을 두드러진 단서로써 연구해보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임산부의 신체적변화를 보완시켜주는 임부복 구성³⁾이나 디자인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디자

인 선호도분석⁵⁾, 의복유형과 그에 따라 인지되는 직업 효율성등⁶⁾과 같이 임산부가 주체로서 경험하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복벌주와 정식의 음양 수준이 임산부의 직업적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오선아의 연구⁷⁾는 타인들이 임산부라는 피지각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의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직장여성이나 지원자의 의복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던 선행 연구들^{2,7~9)}에서 피지각자의 직업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지각자의 직업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¹⁰⁾ 피지각자의 직업 또한 지각자에게 제시된다면 대인지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 가지 의복스타일이 모든 직업유형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 보다는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한 직장여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임산부 직장여성의 의복과 직업이 그녀에 대한 호의도 및 잠재적인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임신한 직장여성의 직업 유형에 따라 어떤 의복스타일이 가장 적절한 균무복인지 밝혀 보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과 인상형성

일상의 맥락에서 타인을 대할 때,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일컬어 인상형성이라고 한다¹¹⁾. Asch는¹²⁾ 형태주의적 견지에서 인상형성의 과정을 연구한 결과, 피지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고립되어 있을 때와 조합되어 있을 때 다른 의미를 갖으며 그 의미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즉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결합체로 전달되어진 인상은 개개의 구성요소적인 형용사 특성정보로부터 예측될 수 없다고 추론했다. 피지각자의 특성은 다른 특성들과의 관련에 의해 최종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지각자는 피지각자의 단서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전체적인상을 형성한다.

이에 덧붙여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피지각자의 여러 단서들이 결합되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수학

적인 결합원칙에 의해 단서들의 의미가 통합되어 최종적인 인상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주장은 외복을 포함한 외모단서를 조작하여 실험한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는 것으로, 단일 외모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외모단서들의 존재 또는 부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¹²⁾.

외모단서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속성을 부여할 때 지각자들은 자신들이 피지각자들에게 부여한 속성들이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속성들은 비슷한 속성끼리 함께 연관되는 경향이 있어, 한 군집 속의 어느 속성은 그 군집 속의 다른 속성도 함께 지닌 것으로 추정되기 쉽다. 이러한 인지구조적 특성을 내현성격이론이라 하며 일련의 지각된 성격특질 사이의 관계는 일상의 맥락에서 타인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¹³⁾.

이러한 대인지각의 이론적 틀 안에서, 인상형성은 (1) 지각자의 신체적 특성, 인지구조를 포함하는 지각자변인과 (2) 피지각자의 시각적 특성, 그 특성의 두드러짐, 피지각자와 지각자간의 유사성을 포함하는 피지각자변인 (3) 판찰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을 일컫는 상황변인에 영향을 받는다¹⁴⁾.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중에서 본 연구와 연관이 있는 변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각자의 직업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들수 있다. Littrell과 Berger¹⁵⁾는 경찰관과 학교 상담교사이인 지각자들이 남 학생들의 외모가 단정한 정도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학교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일반적 외모측면을 주목하고 경찰관은 세부적 단서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피지각자 변인 중 대인지각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는 외복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Damhorst¹⁶⁾는 의류학 분야 연구 논문집에 소개된 109개의 인상형성 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97개의 연구에서 외복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복은 피지각자의 성격, 사교성, 기분, 잠재적 능력, 역동성, 사고의 질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외모단서들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안경이 지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Argyle와 McHenry¹⁷⁾는 지각자가 15초간 안경을 낀 피지각자를 보았을 때와 5분간 보았을 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각자가 5초간 보았을 때만 안경이 지능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같이 상황에 따라 외모단서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2. 직업여성의 의복행동과 적절한 의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외복이 직장에서 좋은 인상을 착용자에게 전달하고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직장여성에게 직업복은 전략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¹⁸⁾ 의복을 통해 성공적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Molloy¹⁹⁾는 그의 저서 “성공을 위한 여성의 옷차림”에서 남성의 정장에 필적할만한 군무복을 갖지 못하던 전문직 여성들에게 각 직업에 따른 적절한 옷차림을 조언함으로써,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는 대부분의 직장여성에게 짧은 색 정장과 대조되는 짧은 색 블라우스가 착용자에게 권위를 부여한다고 제언한다. 직장여성들은 직업상의 성공을 위해서 적합한 이미지 유지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므로 직업상 지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주안에서 최신유행을 수용한다²⁰⁾. 또한 직장여성들에게는 군무복을 이용하여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²¹⁾, 성취욕과 직업복의 소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²²⁾. 그들의 직업에 적합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의복목이 있다고 느낀다²²⁾. 또한 커리어 우먼들은 직장에서 기대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느끼거나, 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들의 직업분야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일했을 때, 프로페셔널하게 웃임는 데 확신이 덜 설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적, 규범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Koch와 Dickey²⁰⁾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성해방론적 성향과 직업상 지위가 외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해방주의자들은 성공을 위한 옷차림의 전략을 더 고수하며 외복이 업무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더 믿는 경향이 있었다.

직장여성의 적절한 옷차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Johnson 등은²⁴⁾ 캠퍼스 리쿠르터들이 적절한 의복을 입은 여성지원자를 적절하지 못한 외복이나 중간정도 적절한 외복을 입은 여성보다 더 유능하고 독립심이 강한 것으로 지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장을 입은 여성과 캐주얼 또는 드레스를 입은 여성에 대한 인상형성을 조사한 연구결과 정장을 입은 여성의 더 전

문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지각되었다^{18,25)}.

Forsythe⁸⁾는 의복의 남성성 정도를 4단계로 조작하여 4가지 의복유형이 관리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4단계의 의복 중 세번째로 남성성이 높은 의복을 입었을 때 관리자가 가장 힘있고, 역동적이며 결단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졌고, 고용 결정에도 가장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넥타이, 스카프, 오픈칼라 블라우스가 여성 중간관리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넥타이나 스카프를 맨 관리자가 오픈칼라 블라우스를 입은 관리자보다 관리자적인 유능함을 더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⁶⁾. 또한 남녀 직장인들은 직장여성의 직업이 남성적일 때는 남성적 스타일을 여성적일 때는 여성적 스타일을 적절한 직업복으로 지각한다²⁷⁾.

3. 임산부 직장여성의 의복

임산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임부복 구성이나 디자인, 디자인 선호도 분석과 같이 임산부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Davis와 Lennon²⁸⁾은 임신이 대인지각의 단서로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쇼핑몰에서 현장실험을 행하였다. 보행자들은 임산부로 가장한 여성에게 일반여성에게 비해 더 넓은 대인공간(Interpersonal Space)을 부여함으로써 임산부에게 반응을 달리했다. 이것은 임신이라는 신체적 특징이 사회적 맥락에서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외모조언임을 시사해준다.

임산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직업 복 유형과 업무효율성의 관계를 조사한 Belleau 등²⁹⁾의 연구 결과 임산부 직장여성들은 균무복으로 정장, 드레스, 드레스/재킷, 점퍼스커트/재킷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이 업무효율성과 정적 상관이, 최신 유행형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는 업무효율성과 정적 상관이, 정장과 드레스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이것은 일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25)}에서 캐주얼 스타일은 적절하지 않은 균무복이며 정장을 적절한 균무복으로 밝혔던 결과와는 상반된다. 오선아⁶⁾는 임부복의 의복범주와 장식의 음양수준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바지정장의 임부복이 가장 진보적이고 역동적으로 지각되고 원피스가 가장 사교적으로 지각됨을 밝혔다.

따라서 임신한 직장여성의 의복스타일은 일반여성의 의복스타일과 같이 대인지각의 단서로서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며 직업유형은 의복스타일과 상호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사려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의복스타일(3수준)과 직업유형(2수준)에 의한 3 x 2의 요인설계에 의한 준실험조건으로 구성되어졌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가설

- 1) 임신복 스타일은 임산부 직장여성에 대한 호의도 평가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2) 임산부 직장여성의 직업유형은 그녀에 대한 호의도 평가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3) 임신복 스타일이 임신한 직장여성의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용어정의

1) 의복스타일

본 연구에서 여성적 스타일은 상아색 원피스, 중성적 스타일은 카키색 점퍼 스커트와 연녹색 블라우스, 남성적 스타일은 흰색/검은색 격자무늬 재킷과 검은색 바지를 말한다.

2) 직업유형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직업으로 전문직인 은행대리와 비전문직인 상점점원의 두가지 유형을 말한다.

3) 호의도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피지각자에게 얼마나 호감을 느끼고, 피지각자가 얼마나 친절하게 느껴지며, 가까이 하기에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게 느껴지는가를 의미한다.

4) 업무수행 능력

본 연구에서 피지각자가 자신의 말은 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느끼며, 피지각자 근무처인 은행 또는 상점과의 계속적 거래 의사를 의미한다.

3.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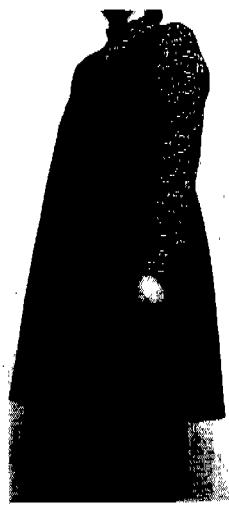
1) 자극물

자극물로 이용될 의복선정을 위해 일부복 제조업체인 (주) 브래나탈 일부복의 1996년 추동 카타로그에서 직장 여성의 근무복으로 적합한 11개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20명의 여대생에게 각 사진의 의복이 얼마나 여성적 또는 남성적인지 5점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점수를 근거로 중앙값(median)을 갖는 스타일을 중성적 스타일로 하고 양극의 점수에 따라 여성적 스타일, 남성적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여성적 스타일은 상아색 원피스, 중성적 스타일로는 카키색 점퍼 스커트와 연녹색 블라우스, 남성적 스타일로는 흰색/검은색 격자 무늬 재킷과 검은색 바지가 선정되었다.

자극물 촬영을 위해 실제 임신 8개월인 임산부가 일부복 제조업체인 (주) 브래나탈 일부복의 협찬으로 제공된 세가지 의복 스타일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촬영시 모델은 화장, 장신구는 하지 않았으며 평범한 디자인의 검은색 구두를 신었다. 모델의 머리모양은 커트스타일로 직장여성의 헤어스타일로 적합한 것이었다. 임산부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30°정도의 측면에서 흰색 페인트칠을 한 벽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본 연구의 자극물로 5"x 7"크기로 현상된 칼라 사진이 이용되었다.



[사진 1] 여성적스타일



[사진 2] 중성적스타일



[사진 3] 남성적스타일

2) 설문내용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극물의 임산부를 은행대리로 소개하는 것과 상점점원으로 소개하는 2가지 종류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피험자의 연령, 성별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자극물에 대한 호의도를 측정하는 문항, 업무수행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자가 호의도를 측정하는 문항 4개와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문항 6개를 1차로 개발하였다. 호의도는 호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자극물의 임산부가 얼마나 친절하게 고객을 대할 것이라고 느끼며, 고객으로서 질문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업무수행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한다고 느끼고, 능숙하게 처리한다고 느끼며, 자극물의 임산부가 권하는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주변사람에게도 권할 의사가 있는지, 계속적인 거래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997년 8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남녀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요청되었다. 그 결과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호의도 문항 4개의 신뢰도(Cronbach's alpha=0.78)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문항 6개의 신뢰도(Cronbach's alpha=0.86)를 측정했다. 또한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끼리 높은 상관을 보일 때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높으므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호의도 평가문항간의 상관계수는 0.3에서 0.6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능력 평가문항간에는 0.3에서 0.8의 분포로 나타났다.

또한 자극물 사진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사진의 의복이 어느정도 여성적 또는 남성적이라고 느끼는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정을 실행한 결과, 3가지 의복스타일 모두 다른 의복스타일과는 척도상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F(2, 117) = 84.275$, $p < .001$) 그러므로 자극물의 수준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본조사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측정도구의 내용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 능력을 가장 잘 측정할 것으로 사려되는 3개 문항—얼마나 맡은 일에 대해 잘 알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것이라 느끼며, 계속적인 거래의사를 묻는 문항—으로 축약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호의도 문항은 예비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피험자가 각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7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측정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문항을 무작위로 섞어서 사용하였다. 또한 자극물을 은행대리와 상점점원으로 소개하는 두 종류의 설문지에서 직업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질문 내용이 유사하도록 문항들을 점검하였고 피험자가 직업을 인지한 상태로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각 문항내용에 직업을 언급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1997년 10월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본 조사의 피험자는 서울과 충남소재 대학 여대생 180명으로 90명에게는 은행대리로 다른 90명에게는 상점점원으로 자극물 모델을 제시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두 종류의 설문지를 받은 학생중에서 각각 30명씩에

게 세가지 사진중 한장씩 제시하였고 피험자는 한 장의 자극을 사진을 보면서 설문지에 답하였다. 따라서 실험 설계는 피험자가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에 따른 6가지 실험조건 중 한 조건에 노출되는 3×2 의 집단간설계이다.

5.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상호작용의 출처를 알기 위해 단순효과 분석과 단순비교 분석을 실행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설 1에 대한 결과

이원변량분석 결과, 임산부 직장여성의 의복스타일은 임산부 직장여성에 대한 호의도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74) = 6.97$, $p < .001$) (표 1). 임산부를 은행 대리로 소개한 경우와 상점점원으로 소개한 경우 남성적 스타일($M = 18.00$, 17.50), 중성적 스타일($M = 17.93$, 16.27), 여성적스타일($M = 14.67$, 15.23) 착용순으로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단순비교 분석 결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호의도 평가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은행대리일 경우 여성적스타일과 중성적스타일, 여성적스타일과 남성적스타일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즉 상아색 원피스를 입은 임산부보다는 카키색 점퍼스커트 또는 겹은색 바지와 재킷을 입은 임산부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바지수트를 입은 임산부가 원피스를 입은 임산부보다 더 높은 사회성을 갖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선행연구⁶⁾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상점점원일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따라 호의도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스타일은 임산부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74) = 16.25$, $p < .001$) (표 3). 은행대리일 경우 남성적 스타일($M = 15.23$)과 중성적 스타일($M = 14.00$) 착용시 여성적 스타일($M = 11.77$)을 입었을 때 보다 더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점점원일 경우 남성적 스타일($M = 14.50$) 착용시 여성적 스타일($M = 12.03$)이나 중성적

스타일($M=11.90$) 착용시 보다 더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즉, 은행대리일 경우 재킷과 바지를 입거나 점퍼스커트를 입었을 때, 상점점원일 경우 재킷과 바지를 입었을 때 다른 스타일 착용시 보다 더 높은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받았다(표 2). 남성적스타일이 여성적스타일에 비해 더 높은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의복의 남성성이 여성지원자의 고용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7~9)}와 일치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근무복이 직장상황의 여성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임신복 스타일 또한 임신상황의 직장여성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가설 2에 대한 결과

직업유형이 호의도 평가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유형은 호의도 평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산부 직장여성의 직업유형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유의한 영향($F(1,174)=3.942$, $p<.05$)을 끼쳐 은행대리일 경우($M=13.67$), 상점점원일 때 보다($M=12.81$) 더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표 2, 표 3). 즉 지각자가 피지각자의 직업을 알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임산부가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임산부에 비해 잠재적으로 더 우수한 업무수행 능력을 지닌 것으로 지각되어졌다.

지원하는 직업에 따라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²⁴⁾와 같이 현재 종사하는 직업도 평가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결과 직업이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지각대상자인 임산부의 직업이 알려졌을 경우

<표 1> 직업유형과 의복스타일이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Source	SS	df	MS	F
직업	12.800	1	12.800	0.692
의복스타일	257.700	2	128.850	6.969***
직업·의복스타일	37.433	2	18.717	1.012
임여	3217.267	174	18.490	

*** $p<.001$

<표 2> 직업유형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균 점수 및 각 직업유형에서의 단순비교 분석 결과

	호의도		업무수행능력	
	은행대리	상점점원	은행대리	상점점원
여성적스타일	14.67(b)	15.23	11.77(b)	12.03(b)
중성적스타일	17.93(a)	16.27	14.00(a)	11.90(b)
남성적스타일	18.00(a)	17.50	15.23(a)	14.50(a)

단순비교 분석 결과 a와 b는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3> 직업유형과 의복스타일이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Source	SS	df	MS	F
직업	32.936	1	32.936	3.942**
의복스타일	271.544	2	135.772	16.249***
직업·의복스타일	42.344	2	21.172	2.534*
임여	1453.900	174	8.356	

* $p<.10$ ** $p<.05$ *** $p<.001$

직업유형은 의복스타일과 같이 대인지각의 단서로서 이용되어 임신한 직장여성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3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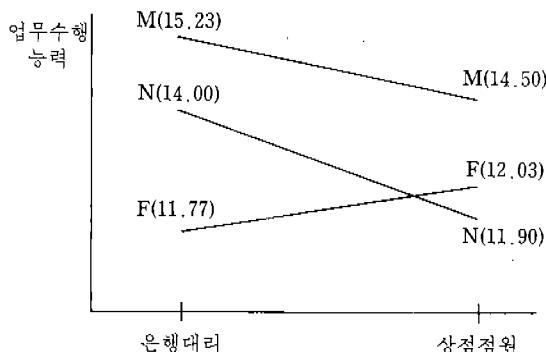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변량분석결과 직업유형과 의복스타일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F=2.53$, $p<.10$)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것은 임산부 여성의 직업이 은행대리일 때와 상점점원일 때 세가지 의복스타일에 따라서 피험자들의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출처를 알기 위해 단순효과·분석과 단순비교 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4에서 같이 은행대리일 때와($F(2,174)=10.85$) 상점점원일 때($F(2,174)=7.70$) 두 경우에서 의복스타일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평가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성적스타일을 입었을 때 직업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74)=7.92$). 그러나 여성적스타일과 남성적 스타일을 입었을 경우에는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나타내

<표 4> 업무수행 능력점수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

Source	SS	df	MS	F
의복 at 대리	185.27	2	92.63	10.85***
의복 at 점원	128.62	2	64.31	7.70**
직업 at 여성적	1.07	1	1.07	0.13
직업 at 중성적	66.15	1	66.15	7.92**
직업 at 남성적	8.07	1	8.07	0.97
오차	1453.900	174	8.36	

p<.05 *p<.01

F: 여성적 스타일 N: 중성적 스타일 M: 남성적 스타일
[도표 1] 직업유형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평가

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에서와 같이 임산부의 직업이 은행대리일 때는 남성적스타일 또는 중성적스타일을 입은 경우 여성적스타일을 입은 경우보다 더 높은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받았으나, 상점점원일 때는 남성적스타일을 입은 경우가 여성적스타일 또는 중성적스타일 착용시보다 더 높은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받아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간에 미약하나마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중성적스타일을 입었을 때 직업을 대리 또는 점원으로 소개하는 것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것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임산부에게는 중성적스타일이나 남성적스타일 간에 업무수행 능력평가에 차이가 없으나, 상점점원 같은 판매직일 경우 남성적스타일과 중성적스타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3은 거지되었다. 은행대리일 경우와 상

점점원일 경우 중성적 스타일 착용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똑같은 임신복스타일도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각대상자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이 상호영향을 미치며 대인지각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임산부 직장여성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임산부도 일반여성처럼 그들의 의복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의복스타일에 따라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임산부 직장여성들의 의복을 통한 인상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어짐을 보여준다.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임산부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남성적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 가장 좋은 평가를 얻게한다는 것은 임신으로 인해 직업효율성이 낮아 보일 수 있는 측면을 의복이 보완해주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둘째로 직업이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피지각자의 사회적 지위또한 각자의 인상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자의 직업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형 연구 결과에¹⁰⁾ 덧붙여, 본 연구는 피지각자의 직업 또한 각자에게 제시되었을 경우 피지각자와 잠재적 능력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째로 어느 한가지 의복스타일이 모든 직업의 임산부여성에게 똑같이 효율적이기 보다는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특히 직업여성들에게 직업특성에 맞는 근무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즉, 은행대리같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있어 남성적스타일과 중성적스타일이 여성적스타일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점점원같은 비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남성적스타일이 여성적스타일과 중성적스타일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은행대리와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임산부에게는 바지와 재킷 또는 점퍼스커트 같은 남성적스타일

과 중성적스타일이 업무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균무복으로 사려되며 상점점원일 경우 바지와 재킷의 남성적스타일이 가장 적절한 균무복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는 피지각자의 여러 특성들이 상호영향을 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체적 인상을 이룬다는 형태주의적 전지에서 임신한 직장여성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상호영향을 미치며 직장상황의 임산부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제 언

본 연구는 임부복 제조업계의 직장여성을 위한 디자인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3/4분기에 여성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1,049,000명으로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인 2,962,000의 1/2에 못 미친다²⁾. 경제활동 참여 여성중 가장 많은 여성이 서비스·판매직종사자이다. 1996년 이후 가사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생활 중 임신을 경험할 여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산부 직장여성의 균무복이 전문직종사자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임부복 제조업체들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로 직업여성들이 임신했을 경우 흠웨어같은 여성적 스타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균무복이라고 해서 곧 남성적스타일이지만은 않기를 권하고 싶다. 적당히 남성적이어서 기능적으로 보이면서도 권위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옷이 서비스·판매직을 포함한 비전문직 직업종사자에게 적합할 듯 싶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피험자로 조사한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직업변인의 조작을 설문지를 통한 글로써 실행하여 처치강도가 미약할 수도 있으므로 현장 실험을 통해 실제 상황에 근접한 조작을 해 봄으로써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전문직 범주안에서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이 많고 적은 정도나, 사회적 권위가 높고 낮은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을 분류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인상형성과정에서 의복뿐 아니라 화장, 모자, 장신구, 가방, 신발등의 다른 외모단서와 직업과의 상호영향을 밝혀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1997년 3/4분기 고용동향, 1997, 11.
- 2) Belleau, B., Miller, K.A., and Church, G.E., Maternity Career Apparel and Perceived Job Effectiven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pp. 30-36, 1988.
- 3) 나미향, 박정미, 이연순, 일부 체형의 횡단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2), pp. 177-196, 1993.
- 4) 김희재, 외출용 일부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연구 - 춘추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8.
- 5) 이은영, 임신부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욕구와의 상관관계,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7.
- 6) 오선아, 일부복의 의복별주 및 장식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5.
- 7) Forsythe, S. M., Effectof Clothing Masculinity on Perception of Managerial Traits: Does Gender of Perceiver Make a Differe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pp. 10-16, 1988.
- 8) Forsythe, S. M., Drake, M. F., & Cox, C. A., Dress as an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in Women, *Hom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pp. 112-121, 1984.
- 9) Cash, T.,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on the Evaluations of Women in Management, In Solomon, M.R.(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p. 343-356, 1985.
- 10) Littrell, M. A. and Berger, E. A., The Perceiver's Occupation and Client's grooming: Influence on Person Percep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4(2), pp. 48-55, 1985-1986.
- 11)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류사, pp. 39-40, 1995.
- 12) Asch, S. 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41, pp. 258-290, 1946.
- 13) Lennon, S. J. and Miller, F. G.,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or l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pp. 1-8, 1984-1985.
- 14)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pp. 220-221, 1985.
- 15) Lennon, S. J. and Davis, L. L.,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 Theoretical perspectiv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pp. 41- 48, 1989.
- 16) Damhorst, M. L.,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through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 1-12.
 - 17) Argyle, M. and McHenry, R., Do Spectacles Really Affect Judgements of Intellig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pp. 27-29, 1971.
 - 18) Solomon, M.R. and Douglas, S. P. The Female Clothes horse: From Aesthetics To Tactics, In Solomon, M. R.(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p. 387-401, 1985.
 - 19) Molloy, J., The Women's Dress for Succes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7.
 - 20) Koch, K. E. and Dickey, L. E., The Feminist in the Workplace: Applications to a Contextual Study of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pp. 46-54, 1988.
 - 21) Erickson, M. K. and Sirgy, M. J., Achievement Motivation and Clothing Preference of White Color Working Women. In Solomon, M. R.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p. 357-369, 1985.
 - 22) Dillon, L. S., Business Dress for Women Corporate Professional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 (3), pp. 124-129, 1980.
 - 23) Rabolt, N. J. and Drake, M. F., Reference Person Influence on Career women's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pp.11-19, 1984-1985.
 - 24) Johnson, K. K. P. and Roach-Higgins, M. E.,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 (3), pp. 1-8, 1987.
 - 25) Thurston, J. L., Lennon, S. J., and Clayton, R. V.,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 139-150, 1990.
 - 26) Johnson, K. K. P., Crustinger, C., and Workman, J. E., Can Professional Woman Appear Too Masculine?, *The Case of the Neckti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2), pp. 27-31, 1994.
 - 27) 김광경, 강혜원, 남성적 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 적합성지각에 미치는 영향(I). 대학 가정학회지, 30(2), pp. 1-20, 1992.
 - 28) Davis, L. L. and Lennon, S. J., Social Stigma of Pregnancy: Further evidence. *Psychological Reports*, 3, pp. 997-998, 1983.